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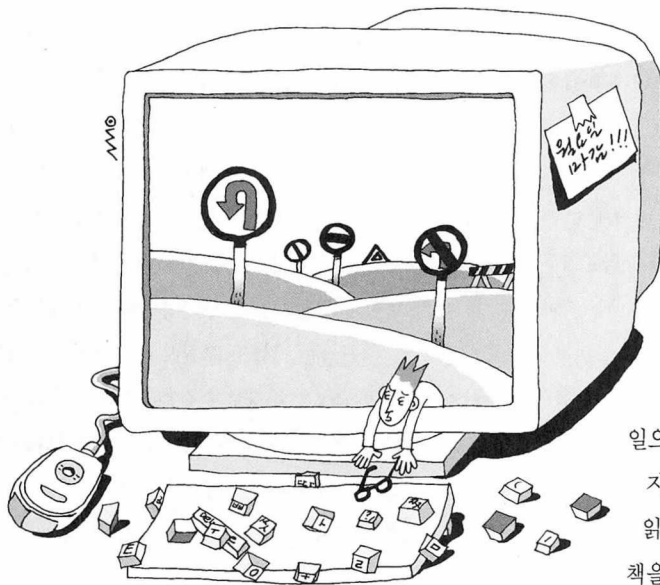
# 행복한 책읽기, 괴로운 글쓰기

마감에 쫓긴 어느 서생의 힘들었던 날들

장철문 | 시인

이 글의 부탁을 받으면서 신정 연휴 이틀이면 되리라고 생각했다. 신정연휴까지 쓸거리를 만든 것은 얼마 전에 참 어정쩡하게 고사했는데, 다시 청탁해왔기 때문이다. 글 써먹고 살려면 자고로 마음이 독해야 한다. 텍스트는 지난 12월 초순부터 읽고 있던 미즈노 코겐(水野弘元)의 《원시불교》(동봉 옮김, 관음출판사). 《남전대장경》을 근간으로 부파불교(部派佛敎) 이전 초기불교의 모습을 추적해 아주 통속적으로 쉽게 풀어쓴 책이다. 한달 넘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출퇴근길 버스 안에서나 겨우 몇장씩 넘겨보는 내 게으른 책 읽기에 대해서 써보려 했다. 글쓰기에는 늘 복병이란 것이 없지 않은데다, 신정 연휴를 모조리 일에 바치기도 뭘해서 12월 31일에 휴가까지 냈다. 휴가를 낼 때는 하루에 다 끝내리라는 의욕도 없지 않았다. 다만 중간에 벽에 부딪치면 하루쯤 묵혔다가 2일날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마감날을 1월 10일로 받았으니, 일찍 마무리해놓고 봄호에 발표할 시들을 정리할 생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를 꼬박 끙끙거렸는데, 스무매 중에서 일곱매쯤 쓰고 팍 막혀버렸다. 되짚어 보니, 몇 문단을 제외하고는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이 따로 놀았다. 1일은 처가에 세배갔다 밤늦게 돌아왔다. 다음날 이전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열두매가량 썼는데, 뭔가 엇나간다 싶었다. 이번엔 한 일곱매까지는 그런대로 말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영 버글거렸다. 나중에 손을 보지, 하고 바둑바둑 열다섯매까지 밀고가는데 키보드를 두들길 때마다 속에서 연방 말 안돼, 말 안돼 했다. 연휴는 끝나가고 있었다. 남들은 밀레니엄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신정 연휴를 그냥 넘기기도 뭘해서 아내와 함께 중국집에 가서 양장피를 먹었다. 소화가 잘 될 리 없다. 그날은 그렇게 제껴버렸다.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 책 읽기와 '자기' 라는 텍스트 읽기

그 다음날은 퇴근 후에 가끔 가는 절에 가서 방석을 깔고 앉았다. 해도 안될 때는 아예 작파하고 잊어버리는 게 낫다. 생각이 야 나지 않을 리 없지만, 일부러 생각하지는 않는다. 생각이 나도 그냥 저 혼자 이리저리 물려다니다가 저 혼자 스러지게 내버려둔다. 굳이 말한다면, 책을 읽는 내 나름의 방식이 없지는 않다. 책에 씌어진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책에 씌어진 내용은 의식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그 연속적인 또는 불연속적인 연쇄반응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력해볼 가치는 있다. 최소한 쫓겨서 읽는 것이 아닐 때만이라도 말이다.

책을 읽을 때, 책과 자신의 대화를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고 큰 공부가 된다. 자신의 신체 또는 의식이 어떤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고 멀어져가며, 또 그 반응들이 어떻게 집적(集積)돼 다음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발현되는가를 지켜보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개념이나 표현, 뉘앙스를 만날 때, 자신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은 책 읽기와 '자기'라는 텍스트 읽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다. 말하자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려 했는데 혀가 꼬인 것이다. 제대로 사지 않은 소리를 한 탓이다.

그날밤에 돌아와서는 늦게 TV를 봤다. 비스듬히 누운 자세에서 곧 책장으로 눈이 갔다. 《근본불교와 대승불교》(박경준 옮김, 대원정사). 마스다니 후미오(増谷文雄)의 168면짜리 얇은 문고본. 그는 《아함경 이야기》 등속이 번역되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일본의 정토종 집안에서 태어났으므로, 관습에 따라 승려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중이 되는 것이 싫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염불을 하면 극락정토에往生한다’는 말이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됐다”는 것이다. 그런 탓인지 그의 대부분의 연구와 저작 활동은 불교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해에 바쳐졌다. 그에게 이르면 불교는 그만 숨을 턱 막아버리는 선문답이나 웅얼웅얼 오리무중의 염불에서 해방된다. 쉽고도 명쾌한 분석과 합리적 실천력을 획득할 뿐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실물로서 다가온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친절한 교법(教法)으로 민중에 호소했던 초기 불전을 깊이 이해한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게다가 그는 도오겐(道元)이라는 봉우리에서 뻗어내려오는 일본불교에도 정통했다. 불교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어려서부터 이어져온 업(業)의 소산이었다면,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회통’ 또한 숙원하는 바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스님을 아버지로 두고, 중이 돼야 할 운명 속에서 정토종의 염불이 그에게 무엇을 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 그가 《근본불교와 대승불교》를 쓴 심층은 짐작할 만하다. 그는 붓다와 그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초기(원시)불교에서 2차결집 이후의 상좌부, 이른바 ‘소승불교’까지를 ‘근본불교’라는 용어로 아우른다.

### 엇나가고 꼬여가는 글쓰기

출퇴근길의 버스 안에서 이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화요일인 4일에는 다시 절에 갔고, 수요일에는 저녁 자리가 있었다. 저녁 자리는 일찍 파했지만, 직장에서 어떤 글을 검토하는데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을 볼 필요가 있었다. 어차피 책을 다 읽어야 쓰는 것이니 컴퓨터 앞에 앉아도 소용없을 터였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경주에 다녀올 일이 있지만, 그전에 목요일이 있고, 마감은 다음 월요일이다. 여차하면 편집자에게 전화해서 하루쯤은 미뤄달라고 할 수도 있다. 목요일에는 퇴근해서 밥손가락 놓자마자 쓰려 했다. 그런데 거실에 형광등이 나갔다. 비디오테이프도 돌려주고 형광등도 살 겸해서 단지 내 상가에 다녀왔다. 형광등을 끼우고, 컴퓨터를 켜놓고 한참을 서성거린다. “지금은 구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지만...” 운운으로 시작하는 이른바 ‘독서수상’을 쓰기 시작한다. 다섯째 정도까지는 스펙스적 써내려간다. 잠시 물을 마시고 굳이 ‘회통’을 물고 늘어지는 그의 문제의식과 우리의 접점에 대해서 쓴다. 테제로서의 ‘근본불교’와 안티테제로서의 ‘대승불교’

의 성격까지. ‘개인과 대중’ ‘분석과 직관’ ‘이성과 감성’ ‘아라한과 보살’. 열다섯째. “두 불교 전통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인간의 처지’에서 새롭게 생각한다면, 그 두 전통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양쪽 측면의 발현에 불과하며, 서로 지양되고 종합돼야 할 것”이라고 쓴다. 그리고 느닷없이 원효(元曉)의 《금강삼매경론》을 생각한다. 소의 두 뿔 사이에 놓인 그의 서안(書案)을, 그의 ‘이변비중’(離邊非中)을.

그쯤에서 뭔가 엇나간 것을 느낀다. 두들길수록 말은 더 꼬여간다. 그래도 무아(無我)의 체득 없이 진정한 이타행(利他行)은 있을 수 없고, 이타(利他)의 실천을 통해 비로소 무아행(無我行)으로 가게 되니, 이는 곧 둘일 수 없다. 대승의 출현은 부파불교가 극단적인 교리화(敎理化)의 길을 걸어 실천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예고됐고, 오늘에 가까와질수록 대승은 그 본래의 면목에서 반(反)해 간다고 쓴다. 이쯤에서는 몇매쯤 써가고 있는지도 놓치게 된다. 나중에 짜깁기를 하더라도 일단 가는 데까지는 가놓고 보자고 밀어붙인다. “80년대 문학과 90년대 문학” 운운한 몇몇 문학평론을 염두에 두고 “자기 성찰 없는 사회적 성찰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순진하다기보다 어리석은 것”이라느니, “욕망과 소비주의에 대한 풍자(?)는 결국 ‘욕망으로부터의 탈주’가 아니라 ‘욕망로의 탈주’가 돼버렸다”느니 도나캐나 늘어놓는다. 그리고 이렇게 쓴다. “이제 그 두 연대도 다 저물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무한 욕망의 시대로부터의 고립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대승’ 운운하면서 저도 몰래 욕망의 수렁에 발목을 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이 무한욕망의 밑없는 뿌리를 향해, 그 어둡고 습한 곳을 향해 돌진하면서 또한 위로는 싹을 틔워야 하는 것이다”라고 쓴다.

‘문서정보’ 창을 통해 이미 서른매가 넘었음을 확인한다. 새벽 두시 반. 대강 다시 읽어본다. 내일 짜깁기하기로 한다. 거실에서 좀 서성거린다 잔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늦은 회의를 마치고 저녁자리에 앉아 있다가 버스 안에서 짜깁기를 시도한다. 매수야 맞추면 그만이지만, 이진 도무지 줄기가 없는 글이다. 멋있는 말은 잔뜩 써냈는데, 서로가 남남이다. 그래도 군데군데 빼고 덧칠해보려고 애쓴다. 더 어그러진다. 결국 실격 판정을 내린다. 막막하다. 내일은 경주에 가야 한다. 월요일이 마감이다. 버스에서 내려도 이게 집으로 가는 길인지 허방으로 가는 길인지 영 멍멍하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며 생각한다. 어쩔 수 없다. 못 쓰게 된 바로 이 이야기라도 쓰자. 신고 안 신고는 그쪽 사정이다. 하연간 약속은 지키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다.●